

2017년 11월 17일, 애월읍 구엄리 구엄리노인회관, 강경민 조사.
정동엽(여, 1931년생, 애월읍 구엄리)

- 줄거리: 겁이 많은 사람과 겁이 없는 사람이 산에 가서 말목을 박고 오는 내기를 하였다. 밤이 되자, 겁이 없는 사람이 산에 가서 말목을 박았는데 실수로 두루마기와 같이 박아버렸다. 일어서려는데 말목에 박힌 두루마기가 걸리자, 귀신이 잡아당기는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고 며칠 후에 죽고 말았다.

[제보자] 남자들 앉으면 뭐 무섭음이나 그까짓거 뭐 무섭느냐 영 허연.

‘절대 무섭 아니 타노렌 곧지 말렌.’

허여. 남자 둘이 앉았어. 게난 “그까짓게 뭐가 무섭느냐?”

하나 사람은

“무섭지 안 허느냐?”

게건 내기 하자. 허난 하나 사람이 “

너 무섭지 안 허덴 허니까 아무디 강 산에 강 말목을 받아동 오렌.”

경 헛어. 게난 내기해서 경 허겟다고.

그 사람이 밤이 말목 박으레 가서. 가난 산에 간 말목을 박아동 오젠 허니까. 가는 사람은 구신이 없다. 곧는 사람은 구신이 있다.

“너가 거기 간 말목을 박앙 오민 무섭지 안 혼 거 알겟다.”

허난 이젠 밤이니까 말목을 박앙 오젠 강 허난 무슨 것이 중꿔 등기는 거라. 게난 두루마기 낱 말목을 박아 붙엇어. 그 사람이 오란 얼마 엇영 죽어붙엇덴 허여.

거난 절대 무섭지 안허다고 허지 말렌 허여. 무서운 건 무서운 거라고 하지. 배짱을 부리지 말라 허지.

경 허연 그 사람 죽엇젠 허여. 며칠 안 뉘언. 충격 받안 놀레여가지고. 진짜 구신이 싯구나 허연. 딱 두루마기 입언 가난. 두루마기 영 말목 곶이 박아 붙언. 허난 중꿔 등기난 구신 싯구나 허연 히여뜩 갈라진 거지게. 경 헤낫젠 옛날에 곶으난.

- 핵심어: 남자, 내기, 말목, 구신(귀신), 두루마기, 산